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학교 음악수업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도 조사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정 보 윤

중학교 음악수업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도 조사연구

김 미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정 보 윤

인 준 서

정보윤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⑩

2005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이 연구는 중학교 음악수업의 교육방법과 수업내용, 교육환경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해봄으로써 현재 중학교 음악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학교 음악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무작위표본추출로 세 지역으로 나누어 5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결과의 결과를 백분율로 나타내어 지역별로 비교·분석하였다.

I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내용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고, II장에서는 음악교육의 필요성 및 학교의 음악교육과 고등학교의 음악교육을 생각해 보았으며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음악과 목표와 내용, 음악교육환경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III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및 기간, 조사도구에 대해 언급하였고, I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요약하였다. V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을 통해 중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성찰해 보면서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음악교사는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중학교까지의 음악수업 형태나 내용, 교육적 환경 등에 대해 간단한 설문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음악교육의 정도를 파악하고 음악교육의 수준에 따라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연구한 후 연구를 토대로 실제 학습현장에 도입하여, 적은 시간동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음악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연계된 수업이 요구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음악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활동이므로 고등학교에서의 음악수업은 중학교까지 수업과의 연계되고 심화된 수업의 진행이 필요하다.

셋째, 폭넓은 음악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적인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학교 음악수업은 가창의 향상을 위한 활동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으며 창작의 표현을 할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등학교 음악수업에서는 창작의 비중을 높이고 다양한 수업을 통한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며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기자재와 악기를 적극 활용해서 실음을 통한 수업과 시청각적인 요소를 접할 수 있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흥미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들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시사점을 교육현장에서 구체화하여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향후에는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3. 선행연구	3
4. 연구의 주안점	5
II. 이론적 배경	6
1. 음악교육의 필요성	6
2. 학교 음악교육	8
3. 고등학교 음악교육	9
4. 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	11
5. 고등학교 음악교육환경	18
III. 연구방법	21
1. 연구대상 및 기간	21
2. 조사도구	21
3. 연구 분석 방법	22

IV. 연구결과 분석 및 요약	23
1. 연구결과 분석	23
2. 요약	52
V. 결론 및 제언	54
1. 결론	54
2. 제언	55

참 고 문 헌

설 문 지

ABSTRACT

표 목 차

<표- 1> 음악교육의 목표	11
<표- 2> 이해영역	21
<표- 3> 활동영역	41
<표- 4> 서울시 고등학교 음악과 교구설비기준	91
<표- 5> 연구대상	12
<표- 6> 설문지 구성 내역	22
<표- 7> 교사의 자질	32
<표- 8> 학생들이 음악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기위한 교사의 노력	52
<표- 9> 교과서 외의 자료 사용	62
<표-10> 교사의 다양한 영역의 수업 여부	82
<표-11>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에 대한 수업 여부	92
<표-12> 비중이 많았던 영역의 수업	13
<표-13> 좀 더 다루고 싶은 영역	23
<표-14> 가장 흥미있었던 영역	43
<표-15>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	53
<표-16> 감상곡 이해	73
<표-17> 중학교 음악수업시 배웠던 가창곡	83

<표-18> 악기연주 가능 여부	93
<표-19> 기본적인 창작 가능 여부	14
<표-20> 창의성 계발 여부	24
<표-21> 활동중심의 음악교육	34
<표-22> 국악교육의 여부	54
<표-23> 평가의 타당성 여부	64
<표-24> 음악기자재 사용 여부	74
<표-25> 서양악기의 사용 여부	84
<표-26> 전통악기 사용 여부	05
<표-27> 교육기자재 사용 여부	15

그 래 프 목 차

<그래프- 1> 교사의 자질	32
<그래프- 2> 음악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기위한 교사의 노력	52
<그래프- 3> 교과서 외의 자료 사용	62
<그래프- 4> 교사의 다양한 영역의 수업 여부	82
<그래프- 5>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에 대한 수업 여부	92
<그래프- 6> 비중이 많았던 영역의 수업	13
<그래프- 7> 좀 더 다루고 싶은 영역	23
<그래프- 8> 가장 흥미있었던 영역	43
<그래프- 9>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	53
<그래프-10> 감상곡 이해	73
<그래프-11> 중학교 음악수업시 배웠던 가창곡	83
<그래프-12> 악기연주 가능 여부	93
<그래프-13> 기본적인 창작 가능 여부	14
<그래프-14> 창의성 계발 여부	24
<그래프-15> 활동중심의 음악교육	34
<그래프-16> 국악교육의 여부	54
<그래프-17> 평가의 타당성 여부	64
<그래프-18> 음악기자재 사용 여부	74
<그래프-19> 서양악기의 사용 여부	84
<그래프-20> 전통악기 사용 여부	05
<그래프-21> 교육기자재 사용 여부	1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급속한 사회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음악교육에서의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환경, 교육제도 그리고 학습방법 등은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1세기의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음악교과는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즉,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교 음악교과는 다양한 악곡의 경험을 통해서 음악 개념을 이해하고,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음악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고력을 길러 음악에 대한 심미적인 안목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 이처럼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음악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음악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과 창의성 계발을 그 근본적인 목표를 두고 교육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음악 교육은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 및 음악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교육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중학교 음악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학생들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학교교육에서는 입시로 인한 주요과목의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 교육부, 『제 7차 교육과정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p.28

학생들의 정서를 발달시키고 균형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과목인 음악이 적은 시간만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악시수를 늘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적은 시수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학교 음악수업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음악학습 정도를 파악하여서 다양한 음악활동의 수업을 전개하여 음악시수에 맞는 효과적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학교 음악수업의 교육방법과 수업내용, 교육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해봄으로써 현재 중학교 음악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설문 결과 토대로 고등학교 음악교육에서의 효과적인 음악교육방안을 제시하고 학교 음악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서울의 세 지역을 선정한 후 각 지역에서 무작위 표본추출로 학교를 선정하여 남자고등학교·여자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5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이론적 배경으로 음악교육의 필요성, 학교 음악교육, 고등학교 음악교육,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 음악교육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 연구대상, 조사도구, 자료 분석에 대해 언급하였고, 교사의 교육방법, 음악수업의 내용, 음악교육 환경에 대한 설문 결과 분석하고 요약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 및 제언을 통해 중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성찰해 보면서 고등학교에서의 수업방향들을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

이진실²⁾은 음악과 시설 및 교구 확보 실태, 확보된 음악과 시설 및 교구의 활용도, 확보된 음악과 교구를 바탕으로 한 음악교사들의 실기 지도 실태 및 애로사항, 고등학교 교구 설비 기준령에 대한 음악교사들의 인식, 음악교사들의 기악 실기 지도를 위한 기능연수 실태를 설문조사 하였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이 10년 이상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을 볼 때 관련기관과 관련자들의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이어진³⁾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연계성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보다 점진적인 이해와 수준의 심화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연구모형과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철수⁴⁾는 고등학생들에게 음악수업에 관한 인식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등학생들의 올바른 정서 함양과 학교의 질 높은 음악수업을 위해 사회와 학교, 그리고 교사들 모두 폭넓은 노력과 인식의 변화와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박상미⁵⁾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수업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음악수업의 개설여부와 음악실 환경에 대한 설문을 하였고, 결과에 따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이진실, “음악과 시설 및 교구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3) 이어진, “중·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의 체계적 연계성,”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4) 서철수, “고등학생의 효과적인 음악수업을 위한 인식도 조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5) 박상미, “고등학교 음악수업 실태조사: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공소현⁶⁾은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가창, 기악, 감상, 창작, 전통음악, 평가 등의 실제 음악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음악교사를 통한 설문지를 통하여 파악하고 음악수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은아⁷⁾는 현행 중등현장에서 나타나는 창의성 교육의 실태와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을 표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음악교수법을 제시하였다. 심연흠⁸⁾은 중학교의 교육방법과 교육내용,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선왕⁹⁾은 음악과 교구 설비를 시·도별로 비교하고 제주도내 고등학교의 교구·설비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재현¹⁰⁾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개인의 음악적 소질과 특성을 최대한으로 발달시키고 포괄적인 개인음악의 성장과 이를 통한 음악의 생활화를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음악수업의 내용은 연계적이고 위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는 수업방향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연구들은 음악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잘 제시하고 있으나 중학교 교육방법과 수업내용, 교육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의 조사를 통해 고등학교에서의 음악수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음악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

-
- 6) 공소현, “ 부산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조사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7) 고은아, “중·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와 창의성 신장 개선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8) 심연흠, “중학교 음악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9) 고선왕, “제주도내 고등학교 음악과 교구·설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10) 오재현, “국민교육 시대의 고등학교 음악수업 방향연구,” 『예술과 교육』 4, (‘98.11)

기 위해서 교사의 교육방법, 음악수업 내용, 음악교육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해 봄으로써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사의 교육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음악수업의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음악교육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4. 연구의 주안점

이 연구는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왔으며,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음악교육에서 보충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서울시의 세 지역(강서구, 서초구, 강북구)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동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론에서 각 지역의 교육실태를 비교분석하는 한편, 학교음악교육의 공통적인 취약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음악교육의 필요성

음악은 옛날부터 인간사회의 영위와 교육면에서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음악의 가치는 여러 선인들에 의해 강조되었다. 피타고라스는 음악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세계인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고, 플라톤은 국민의 교육은 음악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교육은 미적 감정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에토스론에서는 심성의 훈련과 발전을 위해서 음악이 필수요소이고 음악은 개인의 의지에 영향을 주어 곧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대 중국에서 공자는 플라톤보다 100년 이상이나 앞서서 이미 음악을 윤리, 도덕,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지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기원 전 100년경에 편찬되었다고 전해지는 「예기」에서도 음악의 효용과 교육적 가치를 말하였다.”¹¹⁾ 음악의 효용과 가치는 역사적으로 원시 사회음악의 리듬적 효용, 고대 그리스 에토스론에서 볼 수 있는 음악의 선율적 활용, 고대 로마의 가정이나 사회에 있어서의 음악의 오락적 효능, 중세 그리스도교에서 볼 수 있는 음악의 종교적 가치, 실학주의 시대에 볼 수 있는 음악의 도덕적 가치, 교육자연주의에서 볼 수 있는 음악의 전인 교육적 가치, 예술 운동기에 볼 수 있는 음악의 생활적 가치로 변하는 등의 지속적인 인식이 되어왔고 실생활에 적용되었다.

11) 유덕희, 「음악교육론」 (서울: 개문각, 1983), p. 10.

“음악학습은 인간과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그 효율적 기능을 이용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그 영역을 높여주며, 다른 사람의 느낌과 감정, 창의적인 활동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능력과 태도를 마련해 주며,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게 자기 실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창조해 온 음악 문화유산의 특질을 이해하게 하는 한편, 여러 나라들의 음악 문화가 지니고 있는 보편성과 특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새로운 음악 문화 창건의 바탕을 마련해준다.”¹²⁾

이처럼 인간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음악교육의 교육적 가치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음악교육은 음악을 인간문화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인간이 음악과 함께 생활하면서 음악을 수용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음악교육은 개개인의 타고난 모든 음악적 재능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달시키는 것이며 아울러 음악적 행위와 음악의 영향을 통해서 사회에 적합한 인간으로 교육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간으로 육성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¹³⁾

이렇듯 음악교육은 아름다운 음악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맑고 따뜻하게 하는 동시에 풍요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학교에서의 음악교육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2) p.27.

13) 김종환, 「음악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4) p. 42.

2. 학교 음악교육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도덕적 발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체험을 통하여 익히게 되므로 음악교육은 ‘미적 체험의 교육’이라는 인식 위에서 교육적 실천의 기틀을 잡게 된다. 그러므로 음악적 체험을 함으로써 미의식을 배양해 음악미의 감상능력과 창작능력을 풍부하게 함과 동시에 자연, 인생 그 밖의 모든 방면에 대해 미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학교의 음악 교육은, 음악가나 예술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창조적인 자기표현의 함양과 더불어 학생들의 인격을 완성으로 인도하는데 그 뜻이 있다.”¹⁴⁾

이렇듯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전문적인 음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음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제공한다. 학교 음악교육에서는 음악문화의 창달과 자아실현으로 다양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심미적 안목과 창조적 표현능력 및 음악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게 한다.¹⁵⁾ 또한 풍부한 음악성과 포괄적인 음악능력을 가져 우리나라 문화창달 뿐 아니라 세계음악문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자아실현과 원만한 성격, 균형잡힌 생활 그리고 예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위해서 학교의 음악교육은 필수적이다.

14) 이성삼, 「음악교수법」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2) p.16.

15)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1. p.17.

3. 고등학교 음악교육

청소년기의 음악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고등학생들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준다.

“청소년기는 흔히 개개인이 뚜렷한 개체로 성장하고, 자아를 발견하고, 강한 탐색 욕구와 왕성한 도전감을 지니는 시기로 특징지어지며, 이러한 특성들은 그들로 하여금 학교의 음악 학습과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을 통해 견실한 음악적 성취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청소년기의 그러한 일반적인 인간적 특성들이 음악이라는 특수한 예술 형태와 활동에 작용함으로써 그들은 또 다른 모습의 개체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¹⁶⁾

이처럼 청소년기에는 음악적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으며 음악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 시기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음악시간은 입시위주의 주요 과목 시수에 맞추어 일주일에 1시간이라는 적은 시간을 수업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3년 중 1년 동안의 수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2학년에는 ‘음악과 생활’이라는 선택과목이 채택되어 있지만 박상미¹⁷⁾의 논문에서 2·3학년을 위한 음악수업을 개설한 인문계 고등학교는 매우 적다고 나왔고,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학생이 선택하지 않아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연구되었다. 이처럼 2·3학년에는 음악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등학교 음악은 1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음악교육 현실에서 1년이라는 짧은 수업시간동안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

16) 이홍수, 전계서, p.277.

17) 박상미, 전계서.

킬 수 있게 하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일반교과는 이성계발에 필요한 과목인 반면 예능과목은 감성계발에 필요한 과목이므로 어느 한 가지만 중요시 되어서는 균형있는 인간이 될 수 없으나,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성계발에 치중하여 교육하고 있다. 또한 많은 고등학생들이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 하고 어떤 악기 하나라도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기를 원하며 음악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현실을 볼 때 고등학교의 음악교육은 음악에 관한 최소한의 교양을 기르는 초보적인 단계에 조차 머무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시기의 음악교육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성을 계발시키는 다른 일반교과 교육 이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기는 중요한 육체적, 지적, 감성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며, 고등학생은 청소년기 중 인격형성을 좌우하는 마지막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며 올바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가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잘못된 문화를 접하기 쉽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더욱 더 음악교육을 중요시해야 한다.

음악교육은 표현이나 감상을 통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습목표에 따라 각기 설정한 목표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고등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현재 음악시수에 맞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 효과적인 활동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전인격적인 활동으로 창의성을 계발하고 다양한 음악체험을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4. 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 18)

1) 목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제 7차 교육과정의 음악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1> 음악교육의 목표

음악과 목표	총괄 목표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
	하위 목표	가. 음악의 구성요소를 이해한다. 나. 다양한 음악활동을 경험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른다. 다.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른다.

위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성 계발, 창의성 계발, 음악적 정서함양을 총괄목표로 하고 세 개의 하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위목표‘가’항은 이해 영역의 목표로서 음악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핵심목표라 할 수 있는 하위목표‘나’항 즉,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음악성과 창의성 계발은 다양한 음악을 듣고, 악기나 목소리를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반응하고, 들으며 음악적 내용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등의 수업과정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주어진 문제를 실천적이고, 창의적이고, 일관성 있게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하위목표 ‘다’항은 음악 학습의 정의적 영역의

18)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1.p.18-43.

목표로서 음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고, 나아가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길러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며 사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2) 내용

(1) 이해

제 7차 교육과정의 이해 영역에서는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음색, 빠르기, 셈여림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학교급별에 따라 학습되어야 할 음악 요소를 상세히 제시하였다.

<표-2> 이해영역

구분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이	리듬	·여러 유형의 박자 ·여러 가지 장단 ·리듬꼴의 발전과 변화
	가락	·음계에 따른 가락의 구성과 여러 형태 ·여러 가지 음계 ·민요 음계 ·시김새
	화성	·성부조직 ·여러 조의 3화음, 7화음 ·화음진행
해	형식	·가락의 발전과 변화 ·다양한 시대, 문화권의 악곡 형식
	셈여림	·악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셈여림의 변화
	빠르기	·악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빠르기의 변화
	음색	·여러 가지 창법에 따른 목소리와 음질의 변화 ·여러 가지 주법에 따른 악기 소리와 음질의 변화

이해영역은 초·중등학교에서 다루어진 기초적인 음악 개념을 바탕으로 심화된 음악 개념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둔다. 여러 가지 박자와 리듬의 변화 이해하기, 음계와 여러 가지의 조 이해하기, 여러 성부의 조직과 화음 이해하기, 다양한 시대, 문화권의 악곡 형식 이해하기, 셈여림의 변화 이해하기, 빠르기의 변화 이해하기, 목소리와 악기의 음색 이해하기 등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 등의 7가지의 기본 개념을 들 수 있다. 이해 영역은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 개념들을 습득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여 문제 해결력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높이도록 한다. 학교음악교육에서는 이해영역에서의 7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음악적 체험을 통한 실음중심의 수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활동

활동 영역에서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활동영역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음악교과는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좋은 음악을 감상하는 활동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표-3> 활동영역

구분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동	가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 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풍부한 발성으로 부르기 ·듣고 부르기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여 보고 부르기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창의적으로 부르기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외어 부르기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이해하여 합창 지휘하기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창의적으로 부르기 ·노래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기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 자세, 호흡, 주법, 좋은 음질로 연주하기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여 보고 연주하기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창의적으로 연주하기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외어 연주하기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이해하여 합주 지휘하기 ·여러 유형으로 반주하기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창의적으로 연주하기 ·연주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곡을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여러 유형으로 변주하기 ·다양한 형식의 곡을 만들어 적기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곡의 성격과 구성 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기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하여 듣기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하기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음질과 그 조화를 이해하기 ·다양한 연주 형태와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기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기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기 ·음악을 듣고 평가하기 ·바른 감상 태도 가지기

이처럼 활동영역은 광범위하고 실제적인 예술 활동으로, 노래를 부르고, 듣고, 악기를 연주하고, 창작하고, 표현하고, 지휘하고, 토론하고, 평가하는 등의 모든 음악적 활동을 포함한다. 활동영역의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네 가지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창

가창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기술이며 직접적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체험을 통해 음악적 개념을 형성하고 가창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영역이다. 가창 학습은 바른 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풍부한 발성으로 부르기, 듣고 부르기, 보고 부르기,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학생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외워 부르기, 합창 및 지휘하기, 평가하기 등이 강조된다. 학생들은 가창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음악 요소의 개념과 음악표현 원리를 이해하는 학습이 필요하고 느낌과 생각 등을 개성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창 제재곡을 기악으로 연주하는 등의 학습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창곡과 관련된 감상곡도 감상할 수 있고 창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 기악, 창작, 감상 등의 학습을 다양하게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흥미를 유발하게 되며 즐거운 음악시간이 될 수 있다.

② 기악

기악 또한 가창과 같이 음악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활동으로 악기연주를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의미를 체험하고 풍부한 음악적 표현력

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기악 학습은 바른 자세와 바른 주법 익히기,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학생들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보고 연주하거나 간단한 악곡을 외워서 연주하기, 합주지휘하기, 여러 유형으로 반주하기,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창의적으로 연주하기, 평가하기 등이 있다. 악기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선택하여 지도하도록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초·중등학교에서 학습한 악기를 연계하여 심화 학습이 되도록 하고, 합주에 중점을 둔다. 악기 편성에 있어 다양한 악기와 음원을 동원하고 다양한 편성에 따라 합주, 중주 등을 지도하면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며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 기악에서도 가능한 여러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창작

창작영역은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음악 활동으로 이미 형성된 음악적 개념과 모든 음악활동의 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음악활동이다. 창작 학습은 악곡을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변주하기, 다양한 형식의 곡 만들기, 악기와 목소리 선택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평가하기 등이 있다. 창작학습에서 학생 개인별 수준의 차이를 고려해 기초부터 단계별로 자료를 만들어 지도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창작과정이 끝난 후 각자 지은 가락을 노래, 또는 기악 연주로 표현하기, 감상하고 평가하기 등의 통합적인 학습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 또한 창작 학습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시청각적으로 더욱 흥미롭고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미디어를 이용한 음악수업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④ 감상

감상은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심미적 체험을 제공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영역이다. 감상 학습은 다양한 음악을 들으며 악곡의 특징 파악하기, 음악적 이해를 높여 음악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즐겨 들을 수 있는 태도 기르기,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음악을 감상하고, 분석하고, 토의하여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평가하기 등이 있다. 감상수업시에는 감상곡과 관련된 악곡의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학습과 시대와 작곡가, 악기의 배경 등의 이해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주제의 악보를 불러보거나 악기로 연주하도록 하는 등의 통합적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시한 바와 같이,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이해와 활동영역으로 구분되며 활동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구성하고, 음악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적인 내용과 활동을 선정하여 교사의 재량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 면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창의성과 음악성을 기르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는 기초적인 음악개념과 기능을 바탕으로 심화된 음악 능력을 길러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의 음악 경험 이외에 생활과 연계성을 가진 음악 경험을 유도하여 음악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음악 문화 창달을 위하여 전통음악 내용을 상세화하고 국악과 관련한 학년 수준에 적절한 필수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의 활동 학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미비했던 전통음악에 대한 흥미 유발과 생활화 또한 7차 교육과정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

어, 학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흥미, 수준 등을 적절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준에 맞는 교육의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5. 고등학교 음악교육환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제시한 2004년도 고등학교 음악과 교구설비 기준은 < 표-4>와 같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시 고등학교의 교구설비기준에는 교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는 교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홍경인¹⁹⁾은 서울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음악과 교구·설비에 대해 설문조사하였고 그 결과 현재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의 음악교구 실태는 서울특별시의 음악교구·설비에 제시되어있는 기준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하였다.

좋은 학생에 훌륭한 자질의 교사가 확보되어 있어도 시설의 미비로 학습자의 활동에 지장이 되거나 교사의 학습지도에 영향을 주어 의욕을 상실시키거나 저하시켜 교육성취에 손실을 보아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보다 아름다운 교육을 통해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각 영역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미에 동화되어 질 때 전인격형성으로서의 음악교육이 바라는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음악은 예술작품을 소재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교과이므로 시설과 비품의 활용이 음악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 학습환경은 교육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하고,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학습 환경은 학업성취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들 상호간의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교육체계를 확립하는데 높은 관련성이 있다.

19) 홍경인, “음악교구·설비기준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서울시 고등학교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표-4> 서울시 고등학교 음악과 교구설비기준²⁰⁾

과목	과목명	교구종목	규격	권장	소요기준	비고	
음악	1 강	1 5선칠판			학교당 2		
		2 정간보칠판			학교당 2		
		3 메트로놈			학교당 2		
	2 표 현	1 피아노				학교당 2	
		2 전자 오르간				학교당 2	
		3 아코디언			○	학교당 1	
		4 바이올린				학교당 1	
		5 비올라			○	학교당 1	
		6 첼로			○	학교당 1	
		7 기타			○	학교당 5	
		8 더블베이스			○	학교당 1	
		9 플루트				학교당 1	
		10 클라리넷				학교당 1	
		11 오보에			○	학교당 1	
		12 바순			○	학교당 1	
		13 트럼펫			○	학교당 1	
		14 트롬본			○	학교당 1	
		15 호른			○	학교당 1	
		16 튜바			○	학교당 1	
		17 색소폰			○	학교당 1	
		18 리코더	소프라노15,알토12,테너8,베이스5			학교당 40	
	19 오토하프			○	학교당 1		
	20 캐스터네츠				학교당 5		
	21 트라이앵글				학교당 5		
	22 팀파니			○	학교당 1		
	23 큰북				학교당 1		
	24 작은북				학교당 2		
	25 심벌즈				학교당 1		
	26 탬버린				학교당 1		
	27 반주장구				학교당 2		
	28 소리북				학교당 2		
	29 설치장구				학교당 5		
	30 시물북				학교당 2		
	31 켈과리				학교당 3		
	32 징				학교당 1		
	33 소고			○	학교당 5		
	34 박	압,수 한쌍		○	학교당 1		
	35 가야금				학교당 1		
	36 거문고			○	학교당 1		
	37 해금			○	학교당 1		
	38 단소			○	학교당 40		
	39 대금			○	학교당 1		
	40 향피리			○	학교당 1		
	41 세피리			○	학교당 1		
42 아쟁			○	학교당 1			
43 양금			○	학교당 1			
44 태평소			○	학교당 1			
3 감 상	1 오디오 시스템	CDP 포함			학교당 1		
	2 TV				학교당 1		
	3 VTR				학교당 1		
	4 DVD				학교당 1		

20) www.sen.go.kr 서울특별시 교육청고시 고등학교 교구설비기준, 제 2004-7호.

음악환경이 음악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볼 때, 음악교육에서는 시설과 교구의 혜택과 경험을 동일하게 주어서 실용 위주의 음악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당국은 교육청에서 제시한 교구설비기준에 맞추어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학교의 음악교육, 고등학교 음악교육과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그리고 고등학교의 음악적 교육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청소년기는 음악적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시기이므로 학교의 음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학교의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연계된 음악교육이 필요하며,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하고 통합적인 음악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더욱 더 바람직한 음악교육을 위해 충분히 갖추어진 시설과 다양하고 적극적인 교구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음악수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이 연구는 중학교 음악교육에 대한 설문을 위해 강서, 서초, 강북의 남자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 한곳씩 여섯 학교를 무작위 표본추출하였으며 1학년 학생 총 5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5> 연구대상

지역	성별	배포수	회수	표본수
강서	남	105	103	103
	여	105	104	103
서초	남	105	103	103
	여	105	100	95
강북	남	105	98	95
	여	105	101	99
계		630	609	598

이 연구의 설문지를 2005년 3월 3일부터 15일까지 배포하였고,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회수하였다. 각 학교별로 105부씩 배포하였으나 630부 중에서 609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중복 체크한 학생의 설문지를 제외한 598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 조사도구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중학교 음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기위해 고등학생이 된 학생들에게 학년 초(3월)에 조사한 21개 항목의 설문지이다. 이 설문지는 중학교 음악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중학교 음악교사의 교육 방법, 음악수업의 내용, 음악적 교육환경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중학교 음악교사의 교육 방법, 음악수업의 내용, 음악적 교육환경에 대한 질문을 통해 중학교 음악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고등학교 음악수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6> 설문지 구성 내역

구	분	문항번호
교사의 교육방법	음악교사의 자질	1
	음악교육 영역의 다양성	2-5
음악수업 내용	음악수업 영역 실태	6-8
	음악의 기초개념 이해	9-10
	음악수업에 대한 이해	11-13
	제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수업 정도	14-17
음악교육환경	음악기자재 및 악기사용 정도	18-21

3. 연구분석 방법

설문지를 지역별로 분석한 후 세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분석 및 요약

1. 연구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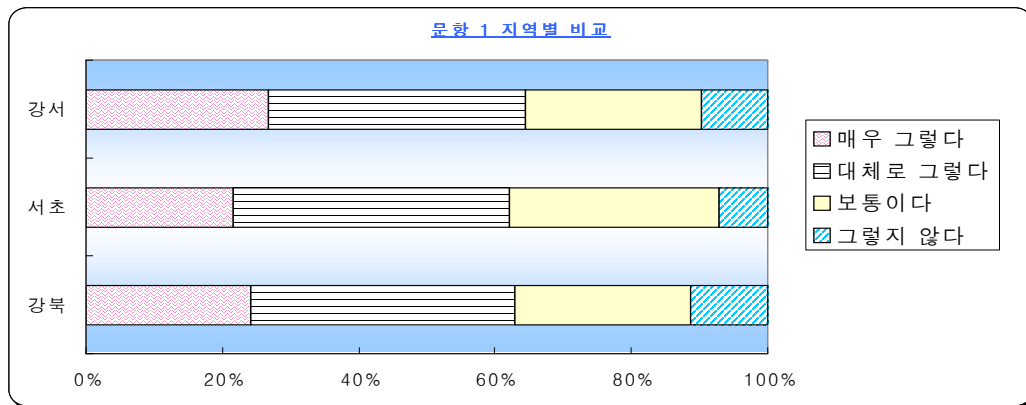
1) 교사의 교육방법에 대한 설문(1-5)

(1) “음악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선생님이었습니까?”에 대한 결과

<표-7> 교사의 자질

문항 1 구분	강서		서초		강북	
	N	%	N	%	N	%
매우 그렇다	55	27%	43	22%	47	24%
대체로 그렇다	78	38%	80	40%	75	39%
보통이다	53	26%	61	31%	50	26%
그렇지 않다	20	10%	14	7%	22	11%
계	206	100%	198	100%	194	100%

<그래프-1> 교사의 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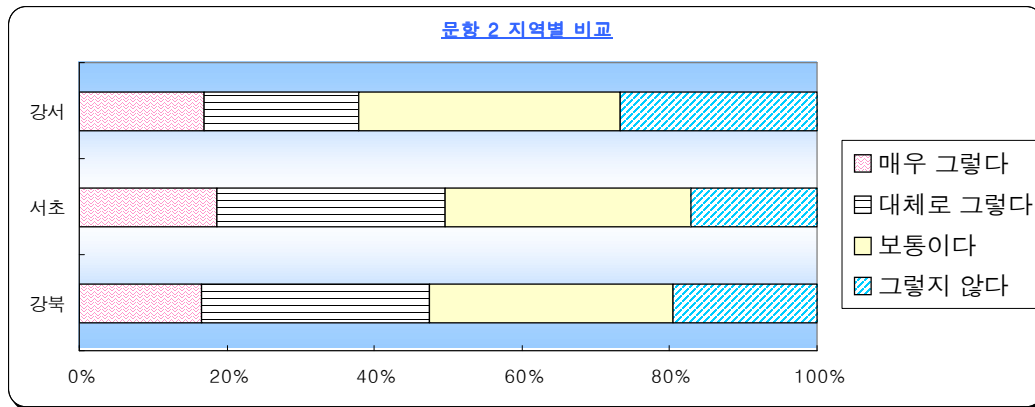
“음악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선생님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강서, 서초, 강북지역의 학생들의 80%이상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의 답을 했고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은 강서10%, 서초7%, 강북11%로 네 개의 보기 중 가장 적게 나타났다. 동 문항으로부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음악교사에 대해서 음악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후 문항에 대한 기본 가정이다.

(2) “학생들이 음악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에 대한 결과

<표-8> 학생들이 음악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기위한 교사의 노력

문항 2 구분	강서		서초		강북	
	N	%	N	%	N	%
매우 그렇다	35	17%	37	19%	32	16%
대체로 그렇다	43	21%	61	31%	60	31%
보통이다	73	35%	66	33%	64	33%
그렇지 않다	55	27%	34	17%	38	20%
계	206	100%	198	100%	194	100%

<그래프-2> 학생들이 음악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기위한 교사의 노력



“학생들이 음악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강서, 서초, 강북지역이 비슷했고, “대체로 그렇다”는 강북과 서초가 각각 31%, 강서 21%로 강서가 낮았으며, “보통이다”는 강북, 서초가 각각 33%로 같았고, 강서가 3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많았다. 또한 “그렇지 않다”는 강북 20%, 서초 17%에 비해 강서지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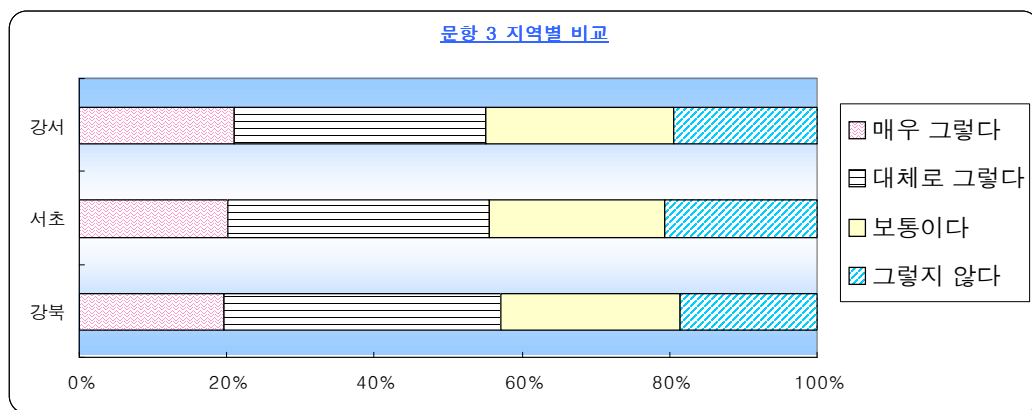
27%로 세 지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강서지역의 교사는 다른 두 지역의 교사보다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지 못하였다는 결과이다.

(3) “교과서로만 수업을 하지 않고 다른 자료도 사용하십니까?”에 대한 결과

<표-9> 교과서 외의 자료 사용

문항 3		강서		서초		강북	
구분	N	%	N	%	N	%	
매우 그렇다	43	21%	40	20%	38	20%	
대체로 그렇다	70	34%	70	35%	73	38%	
보통이다	52	25%	47	24%	47	24%	
그렇지 않다	40	20%	41	21%	36	19%	
계	205	100%	198	100%	194	100%	

<그래프-3> 교과서 외의 자료 사용



“교과서로만 수업을 하지 않고 다른 자료도 사용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강서, 서초, 강북지역의 학생들의 대답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에 20-21%, “대체로 그렇다”에 34-38%, “보통이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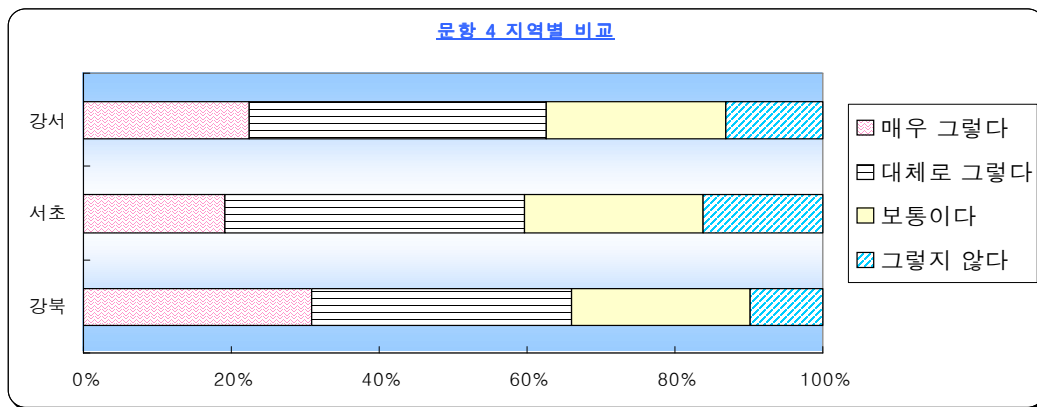
24-25%, “그렇지 않다”에 19-21%로 세 지역 모두 네 개의 문항에 비슷하게 응답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지역에 관계없이 음악교사들이 대체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수업을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앞 문항에서 교사가 학생들이 음악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의 결과와 동 문항의 결과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 문항에서 교사들의 노력이 크지 않았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많았던 강서지역의 학생들은 동 문항에서 다양한 자료 사용여부에 대하여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등의 회의적인 대답이 기타 지역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4) “가창, 창작, 감상, 기악 등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가르치려고 했습니까?”에 대한 결과

<표-10> 교사의 다양한 영역의 수업 여부

구분	강서		서초		강북	
	N	%	N	%	N	%
매우 그렇다	46	22%	38	19%	60	31%
대체로 그렇다	83	40%	80	40%	68	35%
보통이다	50	24%	48	24%	47	24%
그렇지 않다	27	13%	32	16%	19	10%
계	206	100%	198	100%	194	100%

<그래프-4> 교사의 다양한 영역의 수업 여부



“가창, 창작, 감상, 기악 등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가르치려고 하셨습니까?” 질문에 “매우 그렇다”에 대한 답은 강북지역의 학생들이 3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서초지역 학생들은 19%로 세 지역 중 제일 낮았다. “대체로 그렇다”와 “보통이다”에 세 지역 모두 대체로 비슷하게 대답했으며 “그렇지 않다”에서는 강서지역이 13%, 서초지역이 16%, 강북지역이 10%로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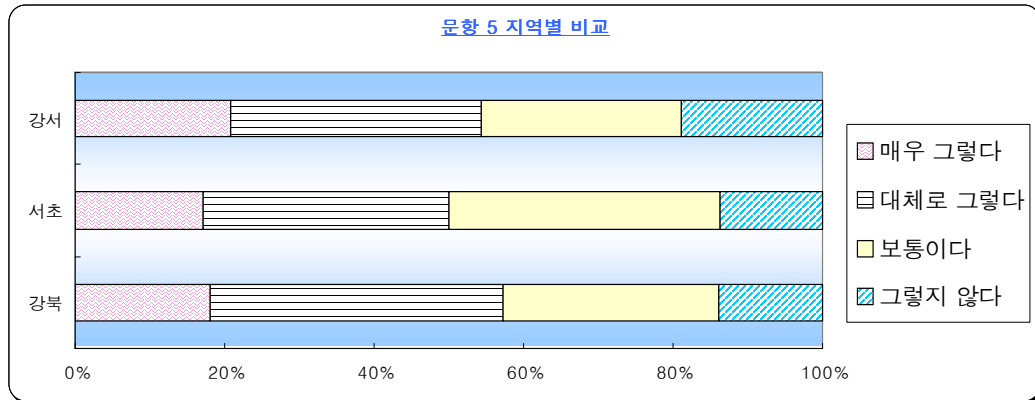
다. 다양한 영역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서초지역 학생들의 응답이 가장 낮았지만 세 지역의 교사들이 비교적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고전음악, 전통음악, 현대음악, 대중음악 등 여러 가지 음악을 다양하게 가르치셨습니까?”에 대한 결과

<표-11>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에 대한 수업 여부

문항 5 구분	강서		서초		강북	
	N	%	N	%	N	%
매우 그렇다	43	21%	34	17%	35	18%
대체로 그렇다	69	33%	65	33%	76	39%
보통이다	55	27%	72	36%	56	29%
그렇지 않다	39	19%	27	14%	27	14%
계	206	100%	198	100%	194	100%

<그래프-5>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에 대한 수업 여부



“고전음악, 전통음악, 현대음악, 대중음악 등 여러 가지 음악을 다양하게 가르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에 대한 답의 합이 강서 54%, 서초 50%, 강북 57%로 나타났고 “보통이다”라는 답은 강서 27%, 서초 36%, 강북 29%로 서초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에는 강북과 서초가 14%로 같았고, 강서는 19%로 두 지역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고전음악, 전통음악, 현대음악, 대중음악 등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가르치려는 노력이 앞의 문항 5에서의 가창, 창작, 감상, 기악 등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가르치려는 노력에 비해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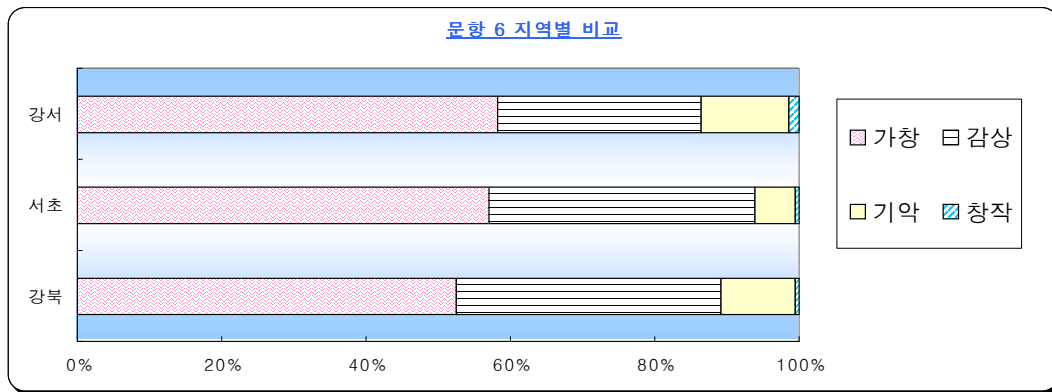
2) 음악수업의 내용에 대한 설문(6-17)

(6) “어느 영역에 비중을 두어 수업이 이루어졌습니까?”에 대한 결과

<표-12> 비중이 많았던 영역의 수업

문항 6						
구분	강서		서초		강북	
	N	%	N	%	N	%
가창	120	58%	113	57%	102	53%
감상	58	28%	73	37%	71	37%
기악	25	12%	11	6%	20	10%
창작	3	1%	1	1%	1	1%
계	206	100%	198	100%	194	100%

<그래프-6> 비중이 많았던 영역의 수업



“어느 영역에 비중을 두어 수업이 이루어졌습니까?”라는 질문에 세 지역 모두 ‘가창’이 53-58%로 다른 영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중의 수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가창’에 이어 ‘감상’ 부분도 28-37%로 네 영역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기악’과 ‘창작’은 각각 10%를 넘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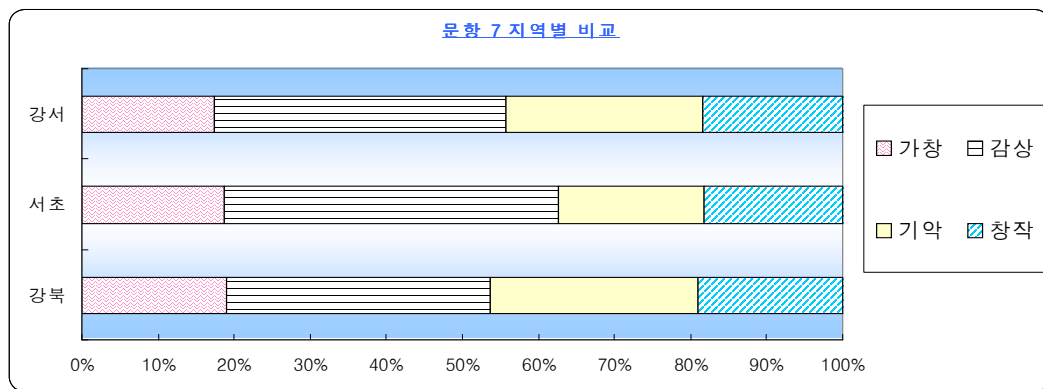
했고 특히 ‘창작’은 세 지역 모두 1%로 중학교 음악수업에서 ‘창작’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창’이 가장 많은 응답자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 아직까지 가창 및 감상 중심의 음악수업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네 영역의 수업이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겠고 현저하게 낮은 비율이 나온 창작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노력이 많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7) “좀 더 많이 다루었으면 했던 영역은 무엇이었습니까?”에 대한 결과

<표-13> 좀 더 다루고 싶은 영역

구분	강서		서초		강북	
	N	%	N	%	N	%
가창	36	17%	37	19%	37	19%
감상	79	38%	87	44%	67	35%
기악	53	26%	38	19%	53	27%
창작	38	18%	36	18%	37	19%
계	206	100%	198	100%	194	100%

<그래프-7> 좀 더 다루고 싶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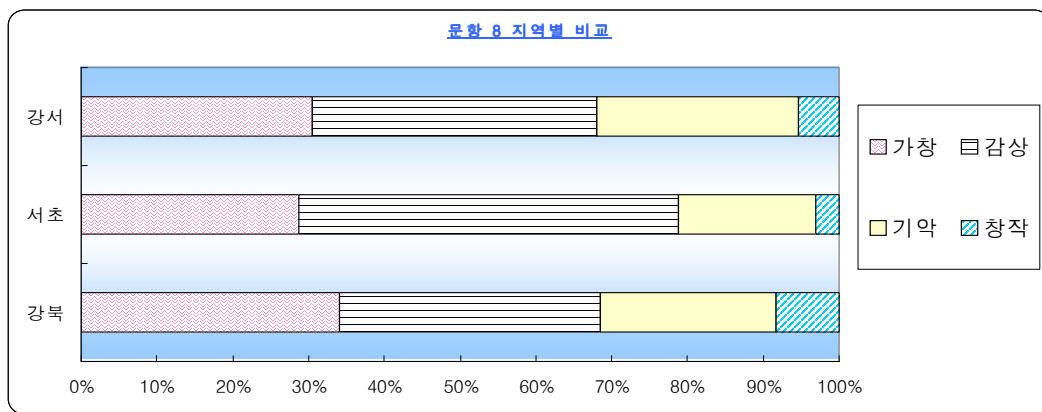
“좀 더 많이 다루었으면 했던 영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강서 38%, 서초 44%, 강북35%의 답을 한 ‘감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악’이 강서 26%, 서초 19%, 강북 27%로 많았다. 또한 ‘가창’과 ‘창작’은 세 지역학생들이 17-19%로 비슷하게 답해주었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더 많이 다루기 원하는 영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감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소극적인 음악활동을 원하는 이유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감상시에는 학생들에게 시청각적인 요소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음악교육기자재가 필요하고, 감상에 대한 수행평가문제를 제시함으로써 감상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8) “가장 흥미있었던 영역을 무엇이었습니까?”에 대한 결과

<표-14> 가장 흥미있었던 영역

문항 8 구분	강서		서초		강북	
	N	%	N	%	N	%
가창	63	31%	57	29%	66	34%
감상	77	37%	99	50%	67	35%
기악	55	27%	36	18%	45	23%
창작	11	5%	6	3%	16	8%
계	206	100%	198	100%	194	100%

<그래프-8> 가장 흥미 있었던 영역



“가장 흥미있었던 영역을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질문의 응답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였는데 강서지역은 ‘가창’이 31%, ‘감상’이 37%, ‘기악’ 27% ‘창작’5%로 ‘감상’이 가장 많았고, 서초지역은 ‘가창’이 29%, ‘감상’이 50%, ‘기악’ 18%, ‘창작’3%로 역시 ‘감상’영역이 가장 흥미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북지역은 ‘가창’이 34%, ‘감상’이 35%, ‘기악’ 23%, ‘창작’8%로 ‘가창’과 ‘감상’이 비슷하게 나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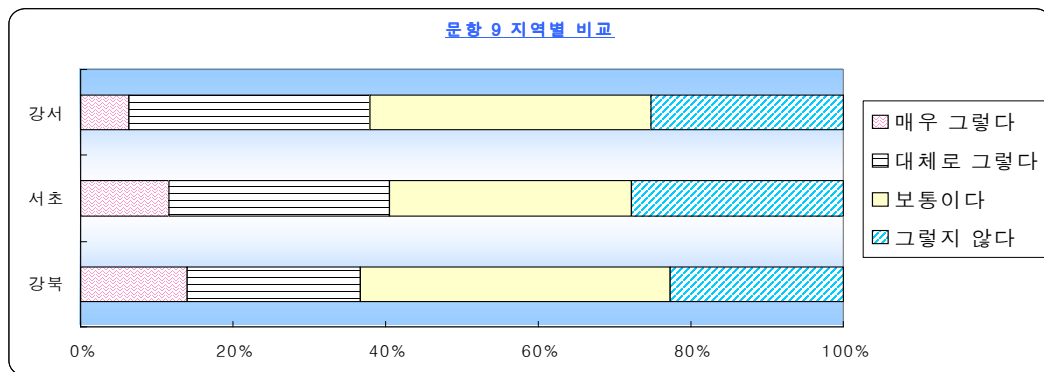
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위의 문항 6을 보면 창작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창작수업을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흥미있었던 영역에서 또한 답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창의성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창작에 대한 수업의 비중이 너무 적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흥미유발에 실패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적극적인 창작 수업의 연구와 시행이 요구된다.

(9) “기본적인 개념(셈여림, 빠르기, 리듬, 가락, 음색, 화성, 형식 등)에 대해 이해했습니까?”에 대한 결과

<표-15>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

문항 9 구분	강서		서초		강북	
	N	%	N	%	N	%
매우 그렇다	13	6%	23	12%	27	14%
대체로 그렇다	65	32%	57	29%	44	23%
보통이다	76	37%	63	32%	79	41%
그렇지 않다	52	25%	55	28%	44	23%
계	206	100%	198	100%	194	100%

<그래프-9>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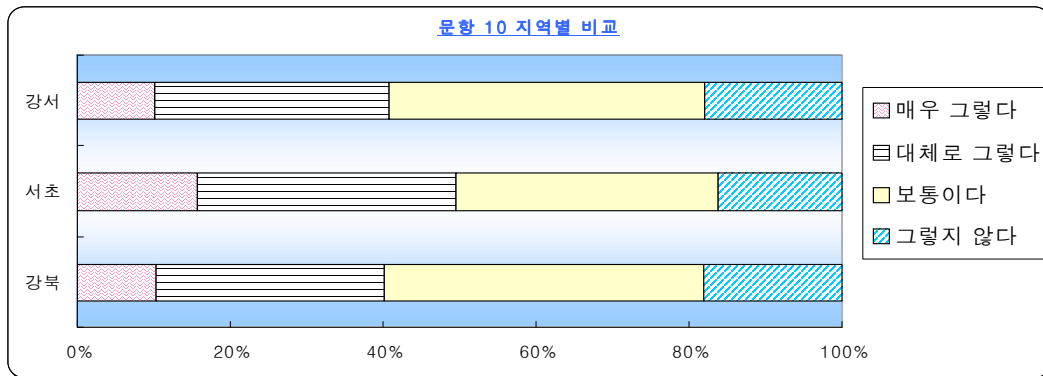
“기본적인 개념(셈여림, 빠르기, 리듬, 가락, 음색, 화성, 형식 등)에 대해 이해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강서지역이 “매우 그렇다”가 6%, “대체로 그렇다”가 32%, “보통이다”가 37%, “그렇지 않다”가 25%의 응답을 하였고, 강북은 “매우 그렇다”가 14%, “대체로 그렇다”가 23%, “보통이다”가 41%, “그렇지 않다”가 23%로 응답하였다. 또한 서초는 “매우 그렇다”가 12%, “대체로 그렇다”가 29%, “보통이다”가 32%, “그렇지 않다”가 28%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이 세 지역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를 매우 잘 한 학생보다 이해하지 못한 학생이 더 많으므로 중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수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중학교 수업까지의 개념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교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10) “감상곡에 대해서(작품의 주제, 구조, 배경, 작곡가 등)이해했습니까?”에 대한 결과

<표-16> 감상곡 이해

문항 10 구분	강서		서초		강북	
	N	%	N	%	N	%
매우 그렇다	21	10%	31	16%	20	10%
대체로 그렇다	63	31%	67	34%	58	30%
보통이다	85	41%	68	34%	81	42%
그렇지 않다	37	18%	32	16%	35	18%
계	206	100%	198	100%	194	100%

<그래프-10> 감상곡 이해



“감상곡에 대해서(작품의 주제, 구조, 배경, 작곡가 등)이해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강서와 강북지역은 “매우 그렇다” 10%, “대체로 그렇다” 30-31%, “보통이다” 41-42%, “그렇지 않다” 18%로 매우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서초는 “매우 그렇다” 16%, “대체로 그렇다” 34%, “보통이다” 34%, “그렇지 않다” 16%로 감상곡에 대해 이해한 학생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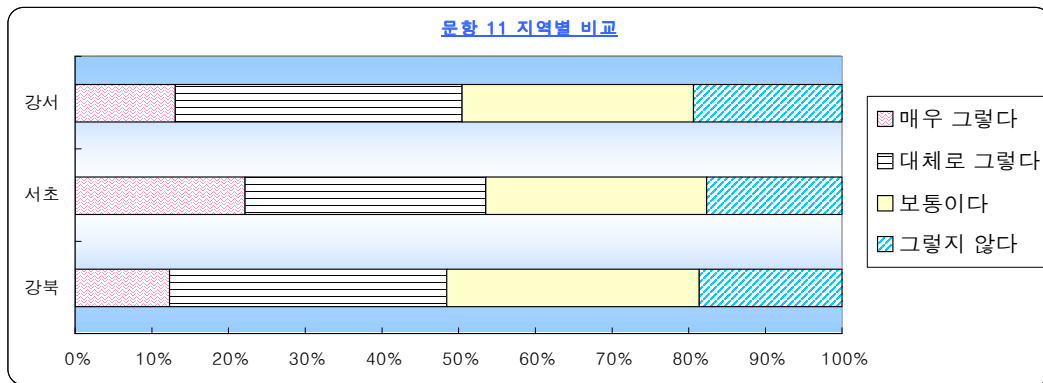
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가 40%이상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의 응답율이 50%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감상시에는 감상곡에 대한 주제, 구조 작품의 배경, 작곡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된 후에 감상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 요구된다.

(11) “중학교 음악수업에서 배웠던 가창곡을 부를 수 있습니까?”에 대한 결과

<표-17> 중학교 음악수업시 배웠던 가창곡

구분	강서		서초		강북	
	N	%	N	%	N	%
매우 그렇다	27	13%	44	22%	24	12%
대체로 그렇다	77	37%	62	31%	70	36%
보통이다	62	30%	57	29%	64	33%
그렇지 않다	40	19%	35	18%	36	19%
계	206	100%	198	100%	194	100%

<그래프-11> 중학교 음악수업시 배웠던 가창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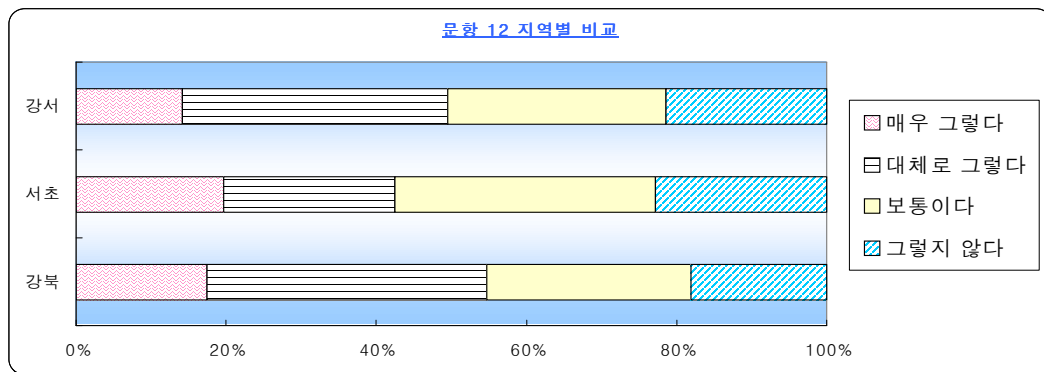
“중학교 음악수업에서 배웠던 가창곡을 부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에 강서와 강북의 13%, 12%에 비해 서초지역이 22%로 높게 나왔고 세 지역 다 “대체로 그렇다”와 “보통이다”에 많이 응답했다. 그리고 중학교 때의 가창곡을 부를 수 없는 것에도 세 지역 모두 18-19%로 흡사하게 나왔다. 가창곡을 부르지 못하는 학생이 18-19% 있는 것으로 볼 때 음악수업에서 가창곡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보고 부르기, 외워 부르기 등의 수업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12) “중학교 음악수업에서 배웠던 악기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결과

<표-18> 악기연주 가능 여부

문항 12		강서		서초		강북	
구분	N	%	N	%	N	%	
매우 그렇다	29	14%	39	20%	34	18%	
대체로 그렇다	73	35%	45	23%	72	37%	
보통이다	60	29%	69	35%	53	27%	
그렇지 않다	44	21%	45	23%	35	18%	
계	206	100%	198	100%	194	100%	

<그래프-12> 악기연주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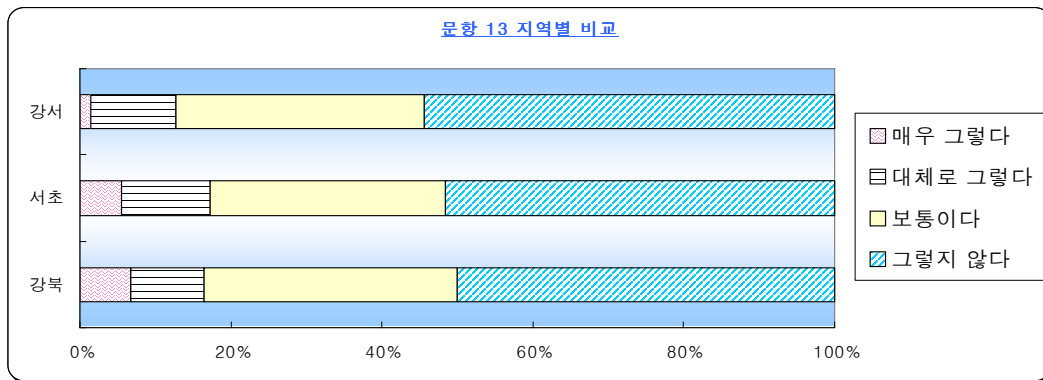
“중학교 음악수업에서 배웠던 악기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합을 보면 강서 49%, 서초 43%, 강북 55%로 강북이 가장 높고 서초지역 학생들이 악기연주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악기연주 가능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강서와 강북이 비교적 비슷하였고 서초지역 학생의 응답은 “매우 그렇다”의 답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많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의 응답율이 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문항 6에서의 결과와 관련을 지을 수 있는데, 어느 영역에 비중을 두어 수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 중 기악에 대한 수업의 비중이 강서와 강북이 비슷하게 나왔고 서초의 기악수업은 두 지역보다 낮았던 결과와 관련이 있다.

(13) “중학교 음악수업에서 배웠던 기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인 창작이 가능합니까?”에 대한 결과

<표-19> 기본적인 창작 가능 여부

문항 13 구분	강서		서초		강북	
	N	%	N	%	N	%
매우 그렇다	3	1%	11	6%	13	7%
대체로 그렇다	23	11%	23	12%	19	10%
보통이다	68	33%	62	31%	65	34%
그렇지 않다	112	54%	102	52%	97	50%
계	206	100%	198	100%	194	100%

<그래프-13> 기본적인 창작 가능 여부



“중학교 음악수업에서 배웠던 기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인 창작이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강서 1%, 서초 6%, 강북 7%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세 지역 모두 50%이상의 답을 보였다. 문항 6과 문항 9의 응답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학교 음악수업에서 창작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창작 역시 가능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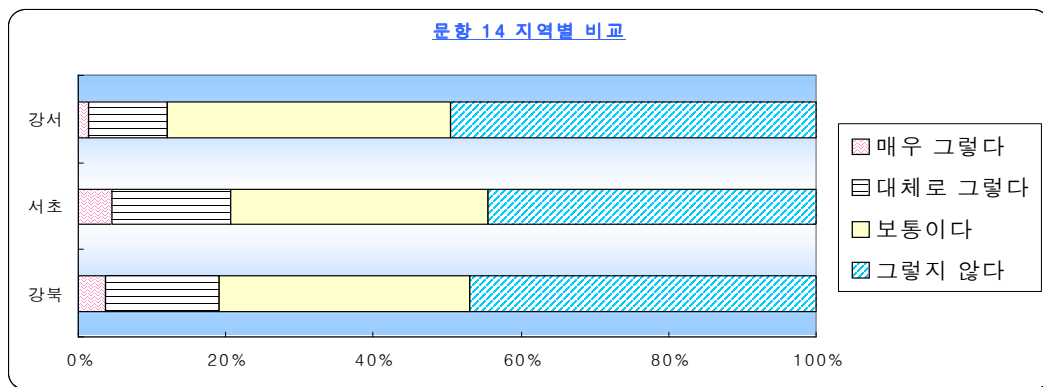
는 답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고등학교 음악수업에서는 중학교 때 비중을 두어 수업하지 않았던 창작수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14) “창의성 계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결과

<표-20> 창의성 계발 여부

구분	강서		서초		강북	
	N	%	N	%	N	%
매우 그렇다	3	1%	9	5%	7	4%
대체로 그렇다	22	11%	32	16%	30	15%
보통이다	79	38%	69	35%	66	34%
그렇지 않다	102	50%	88	44%	91	47%
계	206	100%	198	100%	194	100%

<그래프-14> 창의성 계발 여부



“창의성 계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 역시 8번 문항과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매우 그렇다”는 세 지역 모두 5%이하로 매우 낮고 “대체로 그렇다”도 11-16%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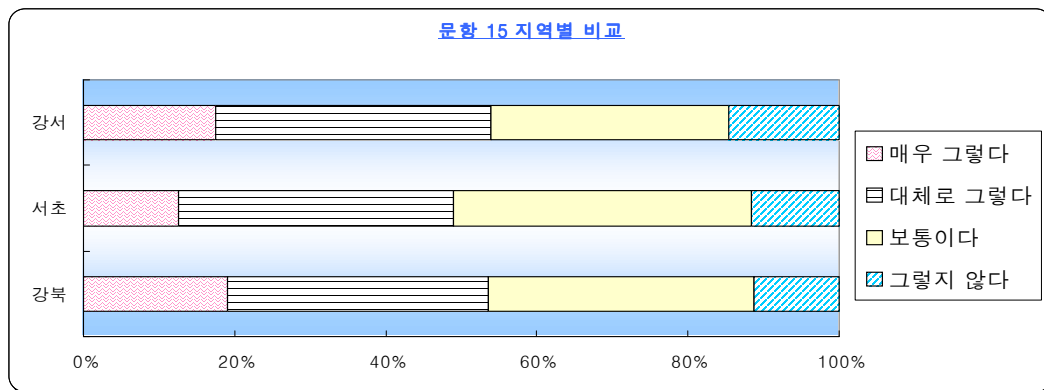
서초 44%, 강북 47%, 강서 50%로 네 항목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문항에 대한 답 역시 문항 6, 문항 9, 문항 13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창의성이 계발되는 창작을 통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곧 창의성 계발을 위한 수업과 무관하다. 이 문항을 통해 다시 한번 창작의 적극적인 수업이 요구된다.

(15) “활동 중심(가창, 감상, 기악, 창작)의 음악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에 대한 결과

<표-21> 활동중심의 음악교육

문항 15 구분	강서		서초		강북	
	N	%	N	%	N	%
매우 그렇다	36	17%	25	13%	37	19%
대체로 그렇다	75	36%	72	36%	67	35%
보통이다	65	32%	78	39%	68	35%
그렇지 않다	30	15%	23	12%	22	11%
계	206	100%	198	100%	194	100%

<그래프-15> 활동중심의 음악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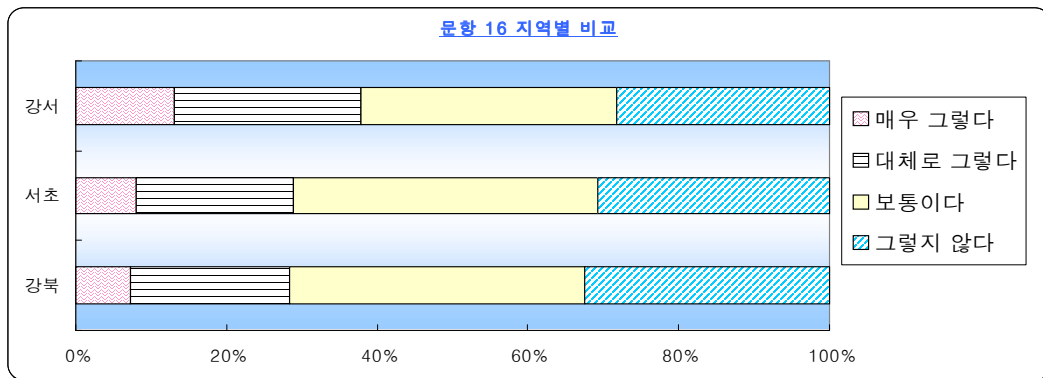
“활동 중심(가창, 감상, 기악, 창작)의 음악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라는 질문에 강서지역은 “매우 그렇다”17%, “대체로 그렇다” 36%, “보통이다” 32%, “그렇지 않다”15%의 응답을 보였고, 서초는 “매우 그렇다”13%, “대체로 그렇다” 36%, “보통이다” 39%, “그렇지 않다”12%의 응답을 보였다. 강북지역은 “매우 그렇다” 19%, “대체로 그렇다” 35%, “보통이다” 35%, “그렇지 않다”11%의 응답을 보여서 세 지역이 활동 중심의 수업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 지역 모두 “보통이다”에 30%이상의 응답을 하였고 10%가 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의 응답을 보였으므로 아직까지 활동중심의 음악교육이 자리 잡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음악수업에서는 가창, 감상, 기악, 창작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6) “우리 음악 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악교육이 강조되었습니까?”에
 대한 결과

<표-22> 국악교육의 여부

문항 16 구분	강서		서초		강북	
	N	%	N	%	N	%
매우 그렇다	27	13%	16	8%	14	7%
대체로 그렇다	51	25%	41	21%	41	21%
보통이다	70	34%	80	40%	76	39%
그렇지 않다	58	28%	61	31%	63	32%
계	206	100%	198	100%	194	100%

<그래프-16> 국악교육의 여부



“우리 음악 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악교육이 강조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답한 학생들보다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를 답한 학생들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학교 음악수업에서 국악교육이 많이 강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우리문화 창달을 위한 국악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 현 학교에서 국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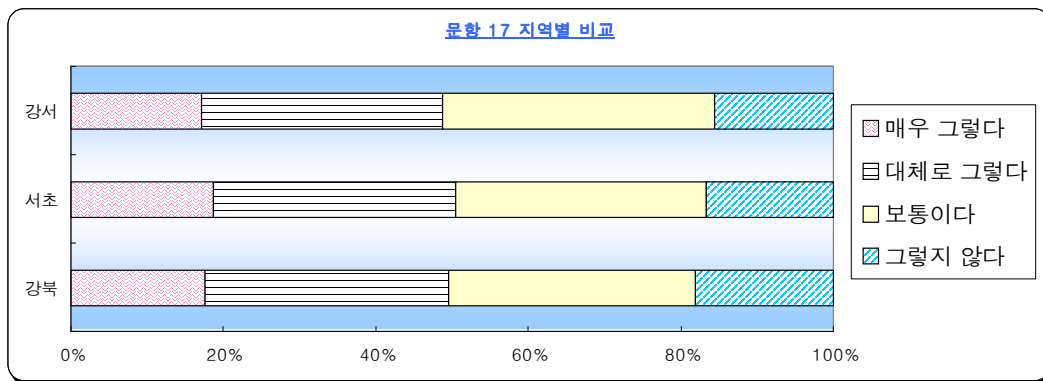
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 문화와 고유한 예술을 길이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국악교육이 필요하다.

(17) “평가는 신뢰있고 타당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결과

<표-23> 평가의 타당성 여부

문항 17 구분	강서		서초		강북	
	N	%	N	%	N	%
매우 그렇다	35	17%	37	19%	34	18%
대체로 그렇다	65	32%	63	32%	62	32%
보통이다	73	36%	65	33%	63	32%
그렇지 않다	32	16%	33	17%	35	18%
계	205	100%	198	100%	194	100%

<그래프-17> 평가의 타당성 여부



“평가는 신뢰있고 타당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16-19%로 비슷하게 대답하였고 “대체로 그렇다”와 “보통이다”가 32-36%로 세 지역 모두 비슷한 평가가 이루어졌

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매우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응답율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아직은 평가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고 여겨져 교사는 평가 시에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해서 객관적이고 신뢰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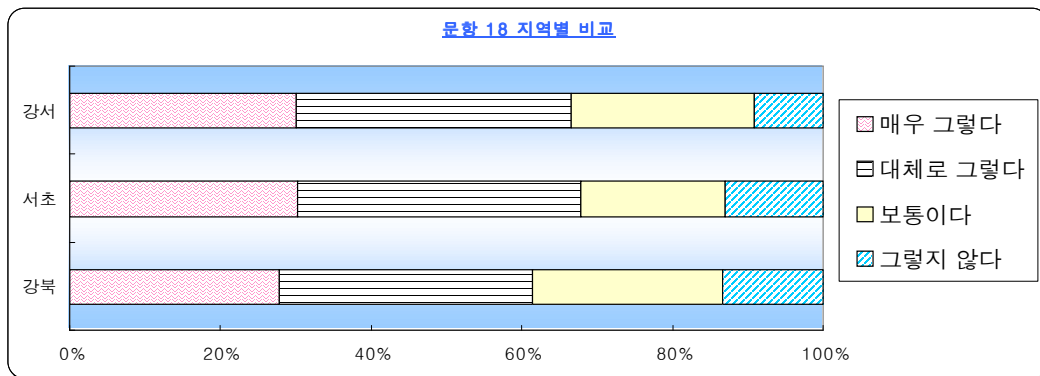
3) 음악적 교육 환경에 대한 설문(18-21)

(18) “보유하고 있는 음악기자재(오디오, 비디오, CD, 카세트, 테이프 등)가 음악시간에 충분하게 사용되었습니까?”에 대한 결과

<표-24> 음악기자재 사용 여부

문항 18		강서		서초		강북	
구분	N	%	N	%	N	%	
매우 그렇다	62	30%	60	30%	54	28%	
대체로 그렇다	75	37%	75	38%	65	34%	
보통이다	50	24%	38	19%	49	25%	
그렇지 않다	19	9%	26	13%	26	13%	
계	206	100%	199	100%	194	100%	

<그래프-18> 음악기자재 사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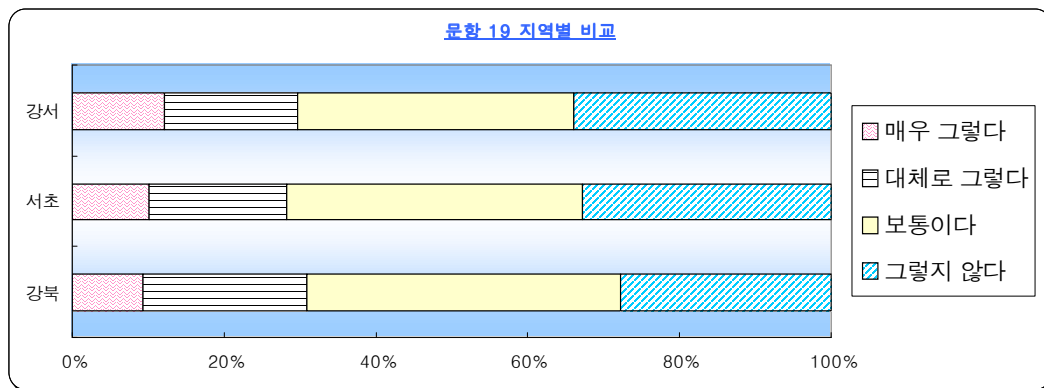
“보유하고 있는 음악기자재(오디오, 비디오, CD, 카세트, 테이프 등)가 음악 시간에 충분하게 사용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가 세 지역 모두 60%가 넘으므로 대체적으로 음악기자재가 적절히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뒤의 문항에서 서양악기와 전통악기의 사용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바로 악기대신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의 사용을 통해서 악기활용의 부족함을 보충하였다는 결과이다.

(19) “보유하고 있는 서양악기가 음악시간에 충분하게 사용되었습니까?”
에 대한 결과

<표-25> 서양악기의 사용 여부

문항 19 구분	강서		서초		강북	
	N	%	N	%	N	%
매우 그렇다	25	12%	20	10%	18	9%
대체로 그렇다	36	18%	36	18%	42	22%
보통이다	75	37%	77	39%	80	41%
그렇지 않다	70	34%	65	33%	54	28%
계	206	100%	198	100%	194	100%

<그래프-19> 서양악기의 사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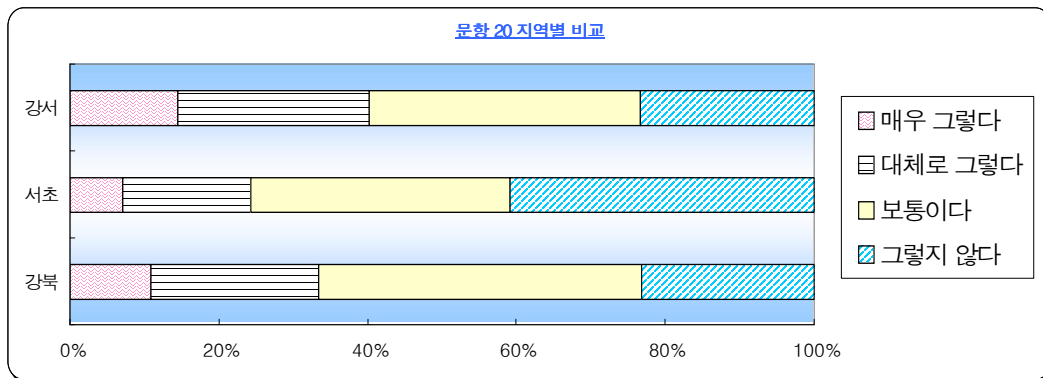
“보유하고 있는 서양악기가 음악시간에 충분히 사용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세 지역 모두 “보통이다”에 가장 많은 대답을 하였고 “그렇지 않다”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서양악기가 다양하고 충분히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강북지역 학생들의 응답을 보면 세 지역 중에 서양악기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율이 저조하고 “그렇지 않다”의 응답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서양악기의 사용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론적 배경에서도 언급했듯이 현 고등학교의 악기보유는 서울시 교구·설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악기의 구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고, 악기사용에 대한 교사들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충분한 서양악기 사용이 요구된다.

(20) “보유하고 있는 전통악기가 음악시간에 충분히 사용되었습니까?”
에 대한 결과

<표-26> 전통악기 사용 여부

문항 20 구분	강서		서초		강북	
	N	%	N	%	N	%
매우 그렇다	30	15%	14	7%	21	11%
대체로 그렇다	53	26%	34	17%	44	23%
보통이다	75	37%	69	35%	84	43%
그렇지 않다	48	23%	81	41%	45	23%
계	206	100%	198	100%	194	100%

<그래프-20> 전통악기 사용 여부



“보유하고 있는 전통악기가 음악시간에 충분히 사용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서초지역에서 “매우 그렇다”가 7%로 저조하게 나타난 반면에 “그렇지 않다”에서 41%의 응답을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서초지역의 중학교에서는 전통악기가 충분히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서와 강북지역은 서초지역보다 전통악기 사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며 강서와 강북지역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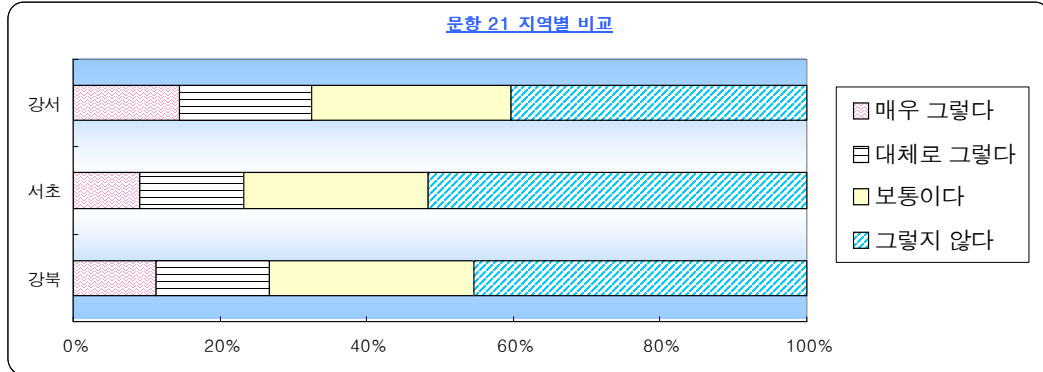
통악기 사용이 대체로 비슷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 지역 모두 전통악기 사용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므로 국악교육의 수업과 전통악기 사용이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1) “교육기자재(컴퓨터, 파워포인트 등)가 충분하게 사용되었습니까?”
에 대한 결과

<표-27> 교육기자재 사용 여부

문항 21 구분	강서		서초		강북	
	N	%	N	%	N	%
매우 그렇다	30	15%	18	9%	22	11%
대체로 그렇다	37	18%	28	14%	30	15%
보통이다	56	27%	50	25%	54	28%
그렇지 않다	83	40%	102	52%	88	45%
계	206	100%	198	100%	194	100%

<그래프-21> 교육기자재 사용 여부



“교육기자재(컴퓨터, 파워포인트 등)가 충분하게 사용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서초지역은 “그렇지 않다”가 52%로 강서와 강북지역보다 5-10%정도 높게 나타났으므로 세 지역 중 서초지역에서 교육기자재 사용이 가장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세 지역 모두 “그렇지 않다”에 40%이상의 응답을 하였으므로 교육기자재가 충분하게 사용되지 않았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교육기자재를 이용한 수업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시청각적인 요소를 접함으로써 음악을 더욱 흥미로워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기자재를 이용한 수업이 활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2. 요약

중학교 음악수업에서의 교수방법과 내용, 음악적인 교육환경에 대해 세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의 교육방법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사가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이 음악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업시간에 세 지역의 음악교사들이 대체로 교과서외의 자료 사용으로 다양한 자료로 수업하려고 했고,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가르치려고 했다는 답을 보였다. 특히 강북 지역의 교사가 가장 다양한 영역을 가르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음악을 다양하게 가르쳤는지에 대한 응답에는 세 지역 교사가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교사들 모두는 다양한 음악을 좀 더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음악수업의 내용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세 지역 모두 아직까지 가창 중심의 수업이 월등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창작수업은 1%로 가창과 창작 수업의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졌다. 음악수업에서 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가장 흥미로웠던 영역에서도 역시 현저히 낮은 응답을 나타냈다. 좀 더 다루고 싶은 영역과 흥미있었다는 답으로는 감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감상 시간이 흥미로웠다는 것과 부담없고 소극적인 음악시간을 좋아하는 두 가지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다. 기본적인 개념이해, 감상곡 이해, 가창곡을 부를 수 있는지, 악기연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 지역의 차이가 많거나 ‘그렇지 않다’의 응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음악시간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가창과 악기연주가 대체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창작의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과 창의성 계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창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수업의 영향으로 창작이 가능하지 않고 창의성 계발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이다. 또한, 활동중심의 수업이 대체로 이루어졌으나 국악수업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고, 평가는 대체로 신뢰가 있었다고 나타났다.

음악적 교육환경에 대한 결과는 음악시간에 오디오, 비디오, CD,테이프 등은 충분히 사용되었으나 서양악기나 전통악기의 사용은 세 지역 다 미흡했다고 나타났고, 특히 교육기자재 (컴퓨터, 파워포인트 등)의 사용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학교별로 음악교육기자재의 사용에 대해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한 기자재를 활용한 적극적인 음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학교 음악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 이하 각 학교 차원에서 교육기자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중학교 음악수업의 교육방법과 수업내용, 교육환경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해봄으로써 현재 중학교 음악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학교 음악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음악교육의 필요성 및 학교 음악교육과 고등학교 음악교육을 생각해 보았고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음악과 목표와 내용, 환경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서울의 세 지역을 선정한 후 각 지역에서 무작위표본추출로 학교를 선정하여 남자고등학교·여자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5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한 결과 지역차가 크지 않았으며 공통된 특징이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자질과 수업에 대한 교사의 노력(교과서 외의 자료 사용, 가창, 감상, 기악, 창작, 전통음악 대중음악 등 다양한 음악 수업,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 등)을 학생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요소들을 교사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교 음악수업에서는 여전히 가창중심 수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고 반면 창작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학생들의 창작능력과 창의성 계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셋째, 서양악기, 전통악기, 교육기자재 등이 수업시간에 소극적으로 사용되었다.

넷째,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음악교육에 대한 설문결과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지역별 차이보다는 세 지역에서 나타난 위와 같은 공통적인 문제점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2. 제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등학교 음악교사는 중학교까지 학생들의 음악교육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학습정도에 맞는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중학교까지의 음악수업 형태나 내용, 교육적 환경 등에 대해 간단한 설문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음악교육의 정도를 파악하고 음악교육의 수준에 따라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연구한 후 연구를 토대로 실제 학습현장에 도입하여 적은 시간동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음악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연계된 수업이 요구된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등학생들에게 중학교까지의 음악교육에 대해 설문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교 수업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음악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활동이므로 고등학교에서의 음악수업은 중학교까지 수업과의 연계되고 심화된 수업의 진행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그들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의 탐색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모든 종류의 음악과 모든 시대의 음악들을 가창, 감상, 기악, 창작 등의 여러 가지 음악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는 교사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수업할 수 있는 학생중

심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지도해야 한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수업이 되려면 교사의 적극적이고 개성있는 수업지도가 요구된다. 단순히 음악을 듣고,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가락을 짓는 등의 활동만이 아닌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영역을 고루 가르치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학교 음악수업은 가창의 향상을 위한 활동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으며 창작의 표현을 할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등학교 음악수업에서는 창작의 비중을 높이고 다양한 수업을 통한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며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학교 음악수업에서는 어느 한 영역에만 치우치는 수업이 아닌 다양한 영역이 고루 분포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창, 감상, 기악, 창작 등의 다양한 음악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학교 음악수업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창작수업에 비중을 높여 학생들이 기본적인 창작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 문화 창달을 위한 국악교육의 비중 또한 높여야 하겠다. 그러므로 보다 폭넓은 음악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적인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악기와 기자재를 적극 활용하는 실음중심 수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교구를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교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교육정책의 개선과 재정적 지원의 뒷받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교구의 설비를 갖추고 활용하여야 한다. 교사는 학교의 음악적인 교육환경의 조건이 미흡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악기나 기자재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건의하는 적극적인 모습

이 필요하다. 음악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연주하지 않고 기자재와 악기를 적극 활용해서 실음을 통한 수업과 시청각적인 요소를 접할 수 있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흥미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들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연구 결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밝혀졌으나 실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세세히 다루지는 못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수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넓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시사점을 교육현장에서 구체화하여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향후에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교육부, 「음악과 교육과정」, 제 1997-15호, 1998.

_____,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제 1997-15호, 2001.

김종환, 「음악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4.

유덕희, 「음악교육론」 서울: 개문각, 1983.

이성삼, 「음악교수법」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2.

이흥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2.

오재현, “국민교육 시대의 고등학교 음악수업 방향연구,” 「예술과 교육」 4,
(‘98.11)

2. 학위논문

고선왕, “제주도내 고등학교 음악과 교구·설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고은아, “중·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와 창의성 신장 개선 방안,” 숙명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공소현, “ 부산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조사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상미, “ 고등학교 음악수업 실태조사: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서철수, “ 고등학생의 효과적인 음악수업을 위한 인식도 조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심연흠, “중학교 음악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어진, “중·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의 체계적 연계성,”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진실, “음악과 시설 및 교구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홍경인, “음악교구·설비기준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서울시 고등학교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 인터넷

www.sen.go.kr

ABSTRACT

An investigation into how high school students recognize middle school musical education

Jung Bo-yun
Majoring in Mu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Women's University
Directed by Prof. Kim Mi-suk

This study aims at diagnosing the problems of current middle school musical education and presenting a plan for improving high school musical education for them by investigating how high school students recognize the methods, contents and environment of current middle school musical education. To achieve the purpose, I made a survey research of 598 randomly sampled students in the first grade of a high school located in Seoul by dispersing them to three regions, and made a region-by-region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findings by a percentage.

Chapter I explored the necessity, purpose and contents of the study and also preceding studies. Chapter II considered the necessity of musical education and also middle and high school musical education, and made a theoretical investigation into the objectives, contents and musical education environment of the department of music in a high school, which are presented in the 7th curriculum for the department of music. Chapter III referred to the method, object and period of study and to survey instrument

by a questionnaire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oretical background. Chapter IV analyzed and summarized the findings of the study. Chapter V reflected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middle school musical education through a conclusion and a suggestion and presented the direction for high school musical education as follows.

First, a high school musical teacher should understand to what extent his or her students received musical education by making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a simple survey research of the form, contents or environment of the musical education that they were provided with until the middle school days, and provide them with efficient musical education from which they can get a great effect for a short time by introducing in actual learning field the study of how he or she will give classes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 musical education they received.

Secondly, middle school musical education should be connected with high school one. They are not separated from each other but organically connected. So the latter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former and deepen it.

Thirdly, a teacher should provide his or her students with integrated instruction in which various domains are organically connected so that they can engage in broad musical activities. Middle school musical education does not provide them with opportunities for creative expression as a result of making too much of the activity for improving singing. Therefore, high school musical education should place a great deal of weight on creation, help them to understand musical role and value through various teaching, and enable them to enjoy music in their lives.

Fourthly, teachers should continue to take interest and make efforts to enable their students to take interest in music and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 it through the instruction by means of actual sound by using positively machine, apparatus, materials and musical instruments and through the one where students can contact audio–visual elements.

A plan for enabling the main suggestions shown in the findings to be concretized in an educational field and applied to the field will have to be more studied hereafter.

설 문 지

안녕하세요?

본인은 석사학위과정 논문으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효과적인 음악 수업을 위한 중학교 음악 수업 조사 연구를 위하여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현재 고등학생들의 음악정서를 밝혀내고 효과적인 음악수업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솔직·정확하고 성의있게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은 이 논문의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이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5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정보윤 올림

*아래의 란에 정확히 기록해 주십시오.

남() 여()

*해당란에 V표를 하십시오. (반드시 한 항에만 응답)

교사의 교육 방법 (중학교 음악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답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1	음악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선생님이었습니까?				
2	학생들이 음악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3	교과서로만 수업을 하지 않고 다른 자료도 사용하셨습니까?				
4	가창, 창작, 감상, 기악 등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가르치려고 하셨습니까?				
5	고전음악, 전통음악, 현대음악, 대중음악 등 여러 가지 음악을 다양하게 가르치셨습니까?				

음악수업의 내용(중학교 음악수업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답해주십시오)

번호	문 항	가창	감상	기악	창작
6	어느 영역에 비중을 두어 수업이 이루어졌습니까?				
7	좀 더 많이 다루었으면 했던 영역은 무엇이었습니까?				
8	가장 흥미있었던 영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중학교 음악수업에 대한 내용)

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9	기본적인 개념(셈여림, 빠르기, 리듬, 가락, 음색, 화성, 형식 등)에 대해 이해했습니까?				
10	감상곡에 대해서(작품의 주제, 구조, 배경, 작곡가 등) 이해했습니까?				
11	중학교 음악수업에서 배웠던 가창곡을 부를 수 있습니까?				
12	중학교 음악수업에서 배웠던 악기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13	중학교 음악수업에서 배웠던 기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인 창작이 가능합니까?				
14	창의성 계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15	활동 중심(가창, 감상, 연주, 창작)의 음악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16	우리 음악 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악교육이 강조되었습니까?				
17	평가는 신뢰있고 타당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악적 교육 환경(중학교의 음악적 교육환경에 대해 답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18	보유하고 있는 음악기자재(오디오, 비디오, CD, 카세트테이프 등)가 음악시간에 충분히 사용되었습니까?				
19	보유하고 있는 서양악기가 음악시간에 충분히 사용되었습니까?				
20	보유하고 있는 전통악기가 음악시간에 충분히 사용되었습니까?				
21	교육기자재(컴퓨터, 파워포인트 등)가 충분히 사용되었습니까?				

♪ 끝까지 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